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4, pp. 277-288  
<https://doi.org/10.29212/mh.2022..124.27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서평] 냉전시대 북한과 베트남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도미엔 지음, 『붉은 혈맹 :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

이신재\*

이 글은 베트남 외교아카데미에 재직 중인 도미엔 박사가 2022년 4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을 통해 출간한 『붉은 혈맹 :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에 대한 서평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1950~1975년 까지 25년간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 형성과 변화에 대해 베트남 학자의 시각에서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1. 북한과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전쟁

2019년 2월 미국과 북한의 제2차 정상회담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회담 이후 8개월 만이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발표되면서 언론

\* 군사편찬연구소 조사연구부장

의 주목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개최 장소였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가 정상회담 장소로 선정된 배경을 놓고 언론에서는 베트남전쟁과 북한의 참전 사실을 연관지어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한때는 ‘비밀의 영역’에 놓여 있었다. 북한과 베트남 그 어느 쪽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개하거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의 기류가 나타났다. 비록 단편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북한과 베트남이 이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본 평자(評者) 또한 2017년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관한 연구서를 발표한 바 있다.<sup>1)</sup> 당시 이 연구는 주월한국군의 전투 사료와 노획문서, 미국, 일본, 북한,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시아 제3국의 자료까지 수집해 확인과 검토를 거쳐야 하는 지난(至難)한 작업이었다. 그 결과 이 주제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라는 과분한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도 있었다.<sup>2)</sup>

그 아쉬움은 베트남과 북한 사료의 부족에서 오는 연구의 한계 때문이었다. 직접적인 참전의 당사자인 두 나라가 이에 대해 공식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기에 연구의 공백 또한 남겨져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평(評)하고자 하는 책은 베트남 학자가 이 주제에 관해 집필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전쟁 시기 북한·베트남 관계에 대한 베트남 연구자의 연구가 있기는 했지만, 국내에서 한국어로 된 단행본을 출간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인 도미엔(Do Thanh Thao Mien) 박사는 국내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각종 학술지에 연구성과를 여

1) 이신재,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7).

2) 이한우, 『북한의 베트남 참전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 『군사』 제104호, 2017.

러 편 발표한 바 있다.<sup>3)</sup> 그리고 이 책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연구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책의 구성과 내용

저자는 북한과 베트남 간 ‘붉은 동맹’의 관계를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북베트남 관계, 북한의 베트남전쟁 지원, 베트남전쟁이 남북한 관계에 미친 영향이다. 저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체적으로 이해되어야 북한과 베트남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4개 장을 1950년부터 1975년까지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 변화를 시기순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제2장은 1950년대 북한과 북베트남의 외교관계 시작과 전개에 대한 내용이다. 사회주의, 반제국주의, 반미 등을 기반으로 한 양국의 연대 형성과 문화, 경제,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다루고 있다.

제3장은 1960년~1967년 시기로 베트남전쟁의 확산과 북한과 북베트남의 연대성 강화에 대한 부분이다. 이 시기 베트남의 게릴라전 개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베트남전 확대와 북한의 국내 정치, 그리고 북한의 북베트남에 대한 지원이 담겨 있다.

제4장은 1968년~1974년 시기로 북한과 북베트남 관계가 이완되

---

3) 도미엔,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 정부의 대응: 베트남 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48집, 2014; 『베트남 학계의 남·북한 연구 동향 및 쟁점: 베트남전쟁 시기(1954-1975년)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50집, 2015; 『베트남 소재 남북한 관련 자료, 베트남전쟁 시기(1954-1975년)를 중심으로』, 『군사』 제96호, 2015; 『1960년대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과 공군·심리전 전문가 파병-새로 발굴한 베트남 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59집, 2019.

는 과정을 다룬다. 1968년 한반도의 안보위기, 북베트남에 대한 북한의 지원 감소, 통일 방식에 대한 양국의 견해 차이, 양국 관계에서 중국 변수 등을 다루고 있다.

제5장은 1975년 베트남 통일과 북한의 반응을 다루면서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요구, 주한미군 철수, 후계체제 강화 등을 기술하고 있다.

북한과 베트남 관계에 관한 역사적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국내 학계에서 각 장의 내용이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각 시기 별로 저자가 새롭게 발굴한 풍부한 베트남 사료는 이 책의 강점이자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베트남전쟁 시기 북한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전쟁 당시 북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베트남 학자가 어떻게 풀어냈고, 새롭게 발굴한 자료는 무엇일까 하는 궁금함이 크기 때문이다.

### 3. 베트남 사료로 확인된 북한의 참전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관한 사항은 이미 여러 차례 다루어져 왔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과 북한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국내에서는 앞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에 북한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단행본이 출간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우드로 윌슨 센터(Woodrow Wilson Center)에서 추진 중인 국제 냉전사 연구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특히 CIA의 베트남 전문가 출신인 프리브나우(Merely Pribbenow)는 베트남 내부 사료를 발굴해 소개하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그 밖에 버뮤데즈(Joseph S. Bermudez Jr),

쥘왈트(James G. Zumwalt), 일본의 미야모토 사토루(宮本悟) 등이 관련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한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김일성전집』 과 언론 보도, 그리고 김일성 일대기를 소재로 한 『불멸의 력사』 시리즈의 하나로 자신들의 참전 사실을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에서도 응우옌티마이화(Nguyen Thi Mai Hoa) 같은 연구자들이 베트남의 국방부 사료를 토대로 발표했고, 일부 항미(抗美)전쟁 관련 공간사에도 단편적 수준으로 소개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도미엔 박사의 이번 저서가 완전히 새롭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학자가 발굴한 베트남의 공식 사료를 활용해 국내에 저서를 출간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충분히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저자가 베트남 사료에서 새롭게 발굴했거나 기존에 제기된 연구를 확인시켜준 대표적인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북한 심리전 전문가의 참전과 훈장 수여

베트남전쟁 당시 북한의 심리전 부대가 과병되었던 점은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68년 5월 주월한국군 백마부대 작전에서 다수의 문서를 노획한 바도 있다.

도미엔 박사는 이 사항을 베트남 사료를 통해 확인해 주고 있다. 우선 전쟁 당시 북베트남의 저명한 장군이었던 반띠엔중(Ban Tien Dung)을 인용해 북한이 1968년 12월까지 심리전과 방송전문가 35명을 파견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전쟁 당시 북베트남 방송 담당자(대령)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북조선 전문가의 도움으로 방송 내용이 더 다양해지고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내용도 밝히고 있다(181쪽). 북한 심리전 전문가들이 남베트남의 한국군 주둔

지역에도 파견되어 활동했고, 베트남인으로 구성된 심리전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영어 교육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182쪽).

이런 사항은 기존 한국군이 노획한 북한군 문서 등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지만, 이것이 베트남 사료를 통해서 재확인된 것이다. 무엇보다 북베트남도 북한 심리전 전문가들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182쪽).

그러나, 반띠엔중이 언급한 심리전 부대 파견 인원이 35명이라는 점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주월한국군이 노획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심리전 부대는 1966년 6월 1진 4명이 남베트남 지역에 도착한 이후 조직을 보강해 1967년 12월에 총 35명 규모로 편성되었다. 전체 부대 규모가 35명이었다는 의미이며, 교대 인원 등을 고려하면 전체 심리전 부대 파병 인원은 증가할 것이다.

한편, 당시 주월한국군으로 파병 중 실종되었던 수도사단 박성렬 병장에 관한 사항도 소개하고 있다. 전쟁 당시 북베트남의 ‘인민군 대신문(1967.4.25)’에 박성렬을 베트남주재 북한대사관에 인계했다는 보도내용이다(185쪽). 현재 박성렬은 이동외과병원 소속의 안학수 하사와 함께 베트남전쟁 국군포로로 인정된 상태이다. 전쟁 당시 평양에서 환영대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북베트남이 이들을 북한에 인계했다는 내용이 베트남 공식 문헌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

## 나. 북한의 무상지원 협정과 공병부대 파병

1965년 7월 16일 평양에서 북한과 북베트남 간에 체결된 무상지원 협정의 구체적 내용도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내용일 것이다. 총 7개 조항과 부록의 내용은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북베트남에

대한 북한의 지원사항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166~168쪽).

협정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북한의 지원이 ‘무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4조는 북한이 북베트남에 조선소와 방공토굴 건설을 위해 설비와 설계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자를 파견하며 북베트남은 이에 필요한 작업조건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제5조에서는 설비와 물자의 인도에 대해 철도를 이용할 경우 북·중 국경까지는 북한이 담당하고 이후에는 베트남이 담당하며, 해상운송은 북한의 항구에서 인도한다는 사항이 담겨 있다.

협정의 부록에는 다양한 품목의 지원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주요한 내용은 1965~66년 자동차 200대, 1966년 말 트랙터 300대, 10만 루블의 약품과 의료기 등이다. 건축물 원조에서는 2개의 방공토굴을 1965~66년 말에, 1개의 지하공장을 1966~67년 말에 인도하며, 이에 대한 설비, 설계, 기술자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이 ‘방공토굴’과 ‘지하공장’에 관한 것이다. 협정문에는 추가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것은 북한의 공병부대 파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위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은 북베트남의 토굴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400~500명 규모의 공병부대를 파병했다.

이에 대해 도미엔 박사는 이것이 베트남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1965년 협정을 토대로 이들을 ‘방공토굴’ 건설을 위한 ‘기술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였다(165쪽).

도미엔의 지적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술자가 곧 북한의 공병이었다는 점은 사실로 보인다. 그 근거로 『김일성 전집』에는 김일성이 ‘갱도 건설을 위해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2000년 재일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서도 보도한 바 있다. 전 CIA의 베트남 분석관이던 프리브나우는

베트남 공병부대의 부대사(部隊史)를 인용해 1965년도부터 북한이 ‘공병연대’를 파병했고, 이들이 북베트남의 지하 지휘 시설과 비행장 건설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sup>4)</sup>

#### 다. 북한의 북베트남 경제지원 현황

북한의 북베트남에 대한 경제지원과 관련하여 베트남 국립자료센터에서 발굴한 자료도 수록되어 있다. 자료에 따르면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북한의 무상지원 규모는 총 4,180만 루블 가량이었다.

북한의 지원은 1965~68년 동안 3,000만 루블이었지만, 1969~73년은 1,180만 루블로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 1973년 북베트남의 팜반동 수상이 김일성에게 재정지원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지원을 늘리는 대신 1974년 이후 중단시켰다(204~206쪽).

1970년대 초반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이 감소한 배경에 대한 북베트남의 해석도 흥미롭다. 북베트남 당국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문제를 지원 감소의 이유로 꼽았다. 북한이 1968년부터 시작된 베트남전 휴전협상을 보면서 베트남의 투쟁과 통일방식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206~212쪽). 저자는 이것을 ‘통일방식의 상호 견해차’라고 평가하였다.

이 자료는 1960~70년대 북한의 대외 경제지원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담고 있다.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북한의 대외 경제연구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는 언급이 부족하지만, 북한과 북베트남의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시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제3국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기존의 북베트남 경제지원에서 더

---

4) Merle Pribbenow, *North Korean Military Engineer Regiment Helped Build Secret Underground Headquarters Complex during the Vietnam War* (January 22, 2019).

나아가 경제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일종의 베트남 전후 경제 복구에 참여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1974년 베트남에서 유전이 발굴되자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발굴도 기대해 본다.

## 4. 여전히 남겨진 물음들

### 가. 북한 공군의 구체적 활동

북한이 베트남전쟁에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포함한 공군부대를 파병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북한과 베트남 두 당사국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하노이 북동쪽 외곽에 북한군 전사자 묘지도 존재한다.

북한 공군의 참전은 전투부대의 참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후 중동전쟁 파병을 거쳐 현재의 북한 공군 전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북한 공군의 베트남 파병은 1966년 10월 무렵부터 시작되었고, 30대의 미그(MiG) 전투기를 운용하였다. 이것은 베트남과 북한의 자료로 확인된다. 참가 규모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베트남 국방부 자료는 96명의 전투기 조종사를 포함해 384명이라고 밝히고 있다(169쪽). 북한은 ‘1개 비행연대’, ‘윤번식 파병’ 등의 기록만 공개할 뿐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sup>5)</sup> 1983년 귀순한 북한 공군 조종사 이용평은 203명의 조종사가

---

5) 김일성, 「월남 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된다(조선인민군 제203부대 군인들과 한 담화, 1966년 10월 19일)」, 『김일성 전집』 제37권, 2001, 373~384쪽. 북한은 베트남(월남)을 ‘월남’으로 쓰고 있음.

파병되었다고 하고, 1996년 귀순한 이철수는 ‘연인원(延人員)’ 개념을 사용해 800명 정도를 제시하고, 최대 7회를 다녀온 조종사도 있다고 했다. 자료마다 파병 규모가 차이 나는 것은 자료 부족과 함께 산출 방식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되는 물음은 파병 규모나 시기 이외에 북한 공군의 전투 활동에 관한 사항이다. 과연 북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전투 역량은 어떠한가,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김일성전집』에는 1967년 5월 30일자 김일성의 축하문이 수록되어 있다.<sup>6)</sup> 북한이 베트남에 파병한 공군 제203부대에서 5월 20일 미군 항공기 10여 대를 격추한 것에 대한 김일성의 축하가 담겨 있다. 한 북한 귀순 조종사는 이때 사건을 기념해 북한 공군에 새로운 이름의 비행대대가 창설되었다고 했다. 또 북한 공군은 베트남 파병 당시 자신들이 촬영한 공중전 영상을 조종사 양성교육에서 활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북한 공군 제203부대의 구체적인 작전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 나. 고사포부대와 특수전 부대의 참전 여부

북한이 베트남에 파병한 부대 중 고사포부대와 특수전 부대에 대한 사항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역사소설 『운명』에는 북한 공군이 파병될 당시 고사포부대 선발대도 함께 갔다고 되어 있다.<sup>7)</sup> 북한 스스로 고사포부대 파병을 인정한 것이다. 전 북한군 총정치국 정치군관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주

6) 김일성, 「축하문-조선인민군 제203부대 전투원들에게(1967년 5월 30일)」, 『김일성전집』 제38권, 2001, 462~465쪽.

7) 정기중, 『운명』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2).

는 동시에 하노이에서의 경험이 평양의 대공방어망 구축에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고 한다.

특수전 부대의 파병에 관한 부분도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베트남전쟁 시기 주월한국군의 자료에는 북한군 특수전 부대의 출현에 관한 ‘첩보’들이 제법 많이 확인된다. 당시 언론 보도에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동남아시아 제3국의 자료에는 그 규모와 역할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까지 공군, 심리전, 공병부대의 파병 등은 베트남 사료에서도 확인되지만, 고사포나 특수전 부대에 관해서는 확인 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더 확인해 볼 부분인 셈이다. 더불어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미군 무기의 북한 인계를 놓고 양국 간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는 일부 알려졌지만, 이 역시 앞으로 베트남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5. 글을 나가며

베트남전쟁을 통해 맺어진 북한과 베트남의 ‘붉은 혈맹’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 북한과 베트남 관계는 냉각기에 놓여 있었다.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관계 수립은 이러한 관계를 지속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과 베트남은 고위급 방문을 재개하면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베트남전쟁 당시 군대 파병을 비롯해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이 공개되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이 무렵이다. 북한과 베트남 양측에서 전쟁 당시의 기록을 단편적이긴 하나 공식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것

이다. 과거의 기억을 호명(呼名)한 것이었다.

오늘날 베트남은 한국과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주요 해외 거점이자 한국인들의 최대 해외 관광지 중 하나가 베트남인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그렇지만 북한과 베트남은 여전히 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을 통한 이념적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베트남 사이에 맺어진 ‘붉은 혈맹’이 적어도 이념적 측면에서는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저명한 냉전사학자 개디스(John Lewis Gaddis)는 역사가를 역사라는 풍경화를 그리는 사람에 비유했다. 개디스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냉전사 연구는 역사라는 풍경화 속에 미처 그리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사료를 통해 그림이 완성될수록 그 시절 상대에 대한 이해도 함께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냉전사 연구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 책의 저자인 도미엔 박사는 베트남 사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1960~70년대 한반도와 베트남의 냉전사 연구를 더 풍성히 하는데 기여한 학자이다. 이번의 저서 또한 냉전시대 북한과 베트남 관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현재 도미엔 박사는 귀국해 베트남 외교아카데미에서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한다. 앞으로도 도미엔 박사가 새로운 사료 발굴을 통해 냉전사 연구와 더불어 한국과 베트남 관계 발전에도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